

Seminar for Intellectual Exchange

SIE BRIEF

SIE(Seminar for Intellectual Exchange)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정기적으로 주관하여 전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 세미나입니다.

Contents

1. 창업투자조합 경험
2. 창업가 pool
3. 창업 교육
4. 투자 및 육성
5. 환경

IPS/aSSIST 창업 생태계 구축

김성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 혁신처장

1. 창업투자조합 경험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2014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은퇴 때, 스승과 제자들이 힘을 합쳐 창업가를 돕는 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을 거쳐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전국 경영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과 창업을 한 제자들까지 총 23명이 참여해 3.29억 원의 펀드(메커니즘엔젤투자조합)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총 중고차 경매 앱 헤이딜러, 수학문제 풀이 앱 칸다, 보상형 질문답변 서비스 아하, 현직자가 대답해주는 취업 질문답변 서비스 코멘토 등 6건의 투자를 집행했고, 2020년 9월 현재 ROI{(회수 + 평가 잔액) / 결성액} 3.84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창업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 사례 없이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23명 중 8명의 운영위원회(교수 3명, VC 1명, 창업가 4명)를 선발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투자자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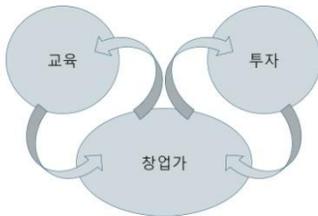
이에 보다 발전된 규모와 조직의 2호 펀드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펀드 운영 경험이 IPS와 aSSIST 조직에 함께 적용되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새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오늘의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창업가 pool

IPS와 aSSIST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에 대단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창업가 pool이 풍부합니다.

1. IPS와 aSSIST 구성원들 중에 이미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예비창업자들이 많습니다.
2. aSSIST 석박사 동문 중 인생 2막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연대/이대/서강대/추계예대 등 가까운 대학의 예비창업자들이 많습니다.
4. 제2의 판교를 꿈꾸는 프론티어이라는 거대규모 창업센터가 공덕에 세워졌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이미 도전한) 창업가들을 너무나 폭넓게 만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IPS/aSSIST 창업생태계>

창업가들에게 교육 및 투자, 육성의 기회 제공해
IPS-aSSIST와 창업가의 공동발전 시도

발행일: 2020. 9. 2.
발행처: 산업정책연구원(IPS)
대표전화: 02-456-5588
홈페이지: www.ips.or.kr
문의:
02-360-0785 hjlee@ips.or.kr

3. 창업 교육

aSSIST는 이미 창업대학원을 신설하여, 창업에 필요한 경영학(창업학, 스타트업 방법론) 커리큘럼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방법론은 아이디어 발견, 페르소나(모델고객) 발견, 최소요건제품 구현, 시장검증, 고객채굴, AB테스트, 자본유치 등 창업 초기에 절실히 필요한 실무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IPS가 창업연구센터를 설립해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들을 검증하고, 사례를 활발히 개발하고, 신규이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학술지(오픈액세스)를 발행해 활발히 발표하면,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포터상 등 기존 시상 프로그램에 스타트업 분야를 추가하거나, 혹은 아예 스타트업을 위한 시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IPS의 정교한 진단평가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지역의 지속가능성 혹은 임팩트 등을 평가하고 발표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입니다.

4. 투자 및 육성

aSSIST는 창업대학원 외에 또 한 축으로 VC/PE MBA 과정을 마련해 2021년 3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대학원에서 창업가들을 모아 교육하고, VC/PE MBA로 투자자/자본가를 모아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aSSIST는 직접 창업투자를 하는 펀드(기술지주회사 형태 등) 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SSIST가 인공지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펀드의 컨셉도 AI로 집중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IPS도 별도의 펀드를 결성해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PS는 CSV 연구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도자로서 CJ 등 많은 가까운 파트너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함께 CSV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예: CSV 창업투자펀드)를 공동으로 결성해 운영하고 협력할 기업들을 연결해준다면, IPS-aSSIST가 함께 더 강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환경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이 무르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라면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없었을 텐데, 요즘은 IPS와 aSSIST가 힘을 합쳐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IPS-aSSIST 인근에 창업가들이 모여들고 있고, 정부가 임팩트 펀드를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임팩트펀드에 공동출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산업은행이 결성하는 임팩트 펀드에 SK그룹 등이 100억 출자 등), 삼성전자 C-lab, 한화그룹 드림플러스, 네이버 D2SF 등 대기업들의 창업생태계(공간 제공, 투자 지원 등)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창업생태계 구축에 도전하기 좋은 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각계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기업 전략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역사의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 및 디자인경영, 경쟁력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하고 있습니다.